

- 주요 뉴스: 미국 11월 PCE 가격지수, 물가 반락 인식 재확언에도 연준 긴축 지속 전망 유지
 - 미국 하원, \$1.66조 규모 '23년 회계연도 지출법안 가결. 정부 섀다운 모면
 - 러시아, 유가 상한제 도입 국가 및 기업에 석유석유 제품 판매 금지 추진 가능성 시사
 - 일본 11월 근원 CPI 상승률, 전년동기대비 3.7% 상승하면서 '81년 이후 최고치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연휴 앞두고 PCE 가격지수 등 물가지표 발표에 영향
주가 상승[+0.6%], 달러화 약세[-0.1%], 금리 상승[+7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섹터 강세로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경기 우려 불구 헬스케어, 은행주 강세로 보합
- 환율: 달러화지수는 거래량이 한산한 가운데 물가지표 예상치 부합 등으로 약보합
유로화 가치는 0.2% 상승, 엔화 가치는 0.4%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인플레이션 둔화 불구 통화긴축 장기화 우려 등으로 상승
독일은 미국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4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281.20원, +1.3원) 0.1% 상승, 한국 CDS 하락

		12/23일	12/22일	전일대비			12/23일	12/22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844.8	3,822.4	0.59%	국채 금리 10y	미국	3.75%	3.68%	7bp
	유럽	427.45	427.26	0.04%		독일	2.40%	2.36%	4bp
	중국	3,045.9	3,054.4	-0.28%		영국	3.64%	3.59%	5bp
	일본	26,235	26,508	-1.03%	CDS 5y	한국	53bp	55bp	-2bp
	한국	2,313.7	2,356.7	-1.83%		중국	76bp	76bp	-1bp
환율	달러지수	104.33	104.43	-0.01%	위험 지표	EMBI+	-	375	-
	유로화	1.0617	1.0596	0.20%		VIX	20.87	21.97	-5.01%
	엔화	132.91	132.35	-0.42%		WTI유	79.56	77.49	2.67%
	위안화	6.9900	6.9854	-0.07%	원자재	구리	380.3	375.2	1.37%
	원화	1,280.8	1,276.2	-0.36%		금	1,798.2	1,792.5	0.32%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11월 PCE 가격지수, 물가 반락 인식 재확인에도 연준 긴축 지속 전망 유지

- 11월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년동기대비 4.7% 상승하면서 10월 5.0%에서 둔화했으나 예상치(4.6%) 소폭 상회. 전월대비로는 10월에 이어 0.2% 상승하고 예상치에도 부합. PCE 가격지수는 전월대비 0.1%, 전년동기대비 5.5% 상승해 10월보다 둔화
- 12월 미시건대 소비자 5-10년 장기 기대인플레이션도 예비치 3.0%에서 2.9%로 최종 집계. 1년 기대인플레이션도 예비치 4.6%에서 4.4%로 추가 하락. 단 경기 둔화를 반영하는 11월 내구재 수주는 전월보다 2.1% 감소하면서 예상치(-1.0%) 큰 폭 하회
- 한편 11월 PCE 개인지출은 전월대비 0.1% 증가에 그치면서 예상치(0.2%) 소폭 하회한 반면, 개인소득은 0.4% 증가해 예상치(0.3%) 상회. 7~9월 임금상승률은 0.5%, 물가상승을 반영한 가처분소득은 0.3% 상승
- 11월 인플레이션 및 소비 둔화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정책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시장 예상보다 길게 유지할 것이란 전망(higher for longer)이 확산. 지표 발표 직후 2년물 및 10년물 국채금리는 5bp 이상 상승
- Citigroup은 최근 발표된 지표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낮출 정도로 경기 과열이 충분히 진정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하며, 상승세가 진정된 상품 가격과 달리 서비스 가격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하원, \$1.66조 규모 '23년 회계연도 지출법안 가결. 정부 섯다운 모면

- 12/24일 정부 섯다운 시한을 앞두고 하원은 국방비 증액,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등을 포함한 '23년 지출법안을 찬성 225, 반대 201로 통과. 연방정부 기기 내 '틱톡' 사용 금지, 1·6 의사당 폭동 사태 재발 방지 등도 포함됐으며 바이든 대통령 서명 시 즉시 시행

■ 러시아, 유가 상한제 도입 국가 및 기업에 석유·석유 제품 판매 금지 추진 가능성 시사

- 노박 부총리는 현재 배럴당 \$60인 유가 상한제에 동참하는 국가 및 기업들에 대한 수출 금지를 예고하며 내년 초 석유 생산을 5~7% 줄일 수 있다고 발언. 서방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려는 시도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 주장

■ 일본 11월 근원 CPI 상승률, 전년동기대비 3.7% 상승하면서 '81년 이후 최고치

- 신선식품을 제외한 11월 근원 CPI 상승률은 1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81년 이래 최고치를 경신. 임금과 함께 물가 상승세가 확산됨에 따라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이 물가 전망을 상향할 것으로 예상하며 통화정책을 추가 조정할지에 주목

■ 일본은행, 10월 금융정책결정회의 의사록 발표 및 향후 정책 조정의 영향 논의

- 10월 의사록에 의하면 일부 정책위원은 초저금리 정책 철회 시 모기지 금리에 미칠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고 촉구. 한 위원은 당장 정책을 조정할 필요는 없으나 장기간 완화의 부작용을 주시하고 시장이 이에 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

■ 중국, 봉쇄조치 완화로 코로나19 감염 급증. 12월 전체 인구의 18% 감염

- 대만 중앙통신사는 유출된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회의 문건을 인용해 12/1일부터 20일까지 중국 인구의 17.6%에 달하는 2억 4,800만명이 감염되었다고 보도. 베이징과 쓰촨성에서는 50% 이상 감염됐으며 월말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관측

■ 일본 정부, '23년 회계연도 방위비 114조엔으로 사상 최대 규모 편성

- 정부는 내년도 방위비를 금년보다 26% 늘어난 114조 3,800억엔으로 결정. 이는 GDP의 1.19%에 상응하며, 본예산 기준 방위비가 GDP의 1%를 상회한 것은 '10년 이후 처음. 기시다 총리는 '27년까지 방위비를 GDP의 2%로 늘리겠다고 표명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12/23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1월 근원 PCE 가격지수(전월대비): 0.2%, 10월(0.2%), 예상치(0.2%)
- 미국 11월 PCE 개인소득: 0.4%, 10월(0.7%), 예상치(0.3%)
- 미국 11월 내구재 수주: -2.1%, 10월(1.1%), 예상치(-1.0%)
- 미국 11월 신규 주택판매건수(전월대비): 5.8%, 10월(7.5%), 예상치(-5.1%)
- 미국 12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확정치): 59.7, 11월(56.8), 잠정치(59.1)
- 미국 12월 소비자 5-10년 기대인플레이션(확정치): 2.9%, 11월(3.0%), 잠정치(3.0%)
- 일본 11월 소비자물가지수(전년동기대비): 3.8%, 10월(3.7%), 예상치(3.9%)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29, E-mail skkim@kcif.or.kr